

화령장 전투의 군사적 재조명과 의의

張 三 烈*

1. 머리 말
2. 상황 평가
3. 북한군의 전략 기도와 아군의 대응
4. 화령장 전투 경과
5. 작전적/전술적 평가
6. 맺 음 말

1. 머리 말

전사연구(戰史研究)는 전쟁의 경험이 없는 현 세대 간부들에게 전쟁의 간접경험을 통하여 전쟁 감각을 익히고 전투적 사고를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수많은 전쟁(戰爭) 교훈(敎訓)을 얻을 수 있는 전투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 6·25전쟁사 연구를 통해 불확실한 전투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혜안(coup d'oeil)을 갖춘 군사적 천재(Military Genius)¹⁾와 전투감각을 갖춘 고급장교를 양성할 수 있

*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전쟁연구과장

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령장(化寧場) 전투는 1950년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에서 지연전(遲延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이다. '북한군 제15사단(師團)이 화령장-상주 축선으로 공격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육군은 급히 국군 제17독립연대(聯隊)에게 방어 임무를 부여하였고 이에 제17연대는 화령장 일대에서 매복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계곡으로 남하 중인 북한군 제15사단을 기습 공격하여 적 주력 2개 연대를 격멸하였다.

화령장 전투(1950. 7. 17~7. 22)는 음성지구 동락리 전투(1950. 7. 4~7. 7)와 함께 지연작전(遲延作戰) 시 국군의 2대 대첩(大捷)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²⁾ 특히, 열세한 전투력으로 대규모의 적을 격파(以小制大)한 전술적 차원에서의 전과(戰果)를 넘어서 작전적 차원에서 대전지역에서 전투를 실시하고 있는 미 제24사단의 주력과 함창 지역에서 방어 중인 국군 제6사단의 퇴로(退路)가 차단당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한국군과 미8군의 전선 재조정(再調整) 및 낙동강 방어선(防禦線)을 위한 귀중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준 중요한 전투였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고 육군대학이나 사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시간적인 이유로 이에 대한 교육이 소홀한 편이다.⁴⁾ 특히,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6·25전쟁사 및 전투사에서도 북한군의 전투서열(戰鬪序列)이 잘못 표기되고 있거나 아군의 전투중대의 배치도가 잘못 표기되는 등 작전 경과가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고

1) Carl Von Clausewitz 저, 김만수 옮김, 『전쟁론』(갈무리, 2006), pp. 111-121. 역자는 coup d'oeil을 통찰력으로 표기하였으나 혜안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됨.

2)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주)교학사, 1984), pp. 375-376.

3) 앞의 책, pp. 365-366.

4) 2009년 1월 확인한 결과 육군대학에서는 가용시간 부족 이유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에서는 전사교육 총 30여 시간 중 10분 정도를 할애하여 실시하고 있음.

있는 실정이다.⁵⁾ 일례로 2007년에 발행된 육군대학의 6·25전쟁사 부도에는 북한군의 전투서열뿐만 아니라 아군 제17연대 제2대대 예하중대의 작전 배치도가 잘못 도식되어 있고⁶⁾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는 6·25전쟁사 관련 서적에도 화령장 전투 부분이 누락되어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⁷⁾ 이렇듯 1990년대에 획득한 공산권 자료(資料)에 의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일부 문헌⁸⁾으로 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부수 및 배포 체계로 인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아직도 사실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실태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화령장 전투에 관한 전사연구나 보고서는 대부분 아군 1개 연대의 열세한 전투력으로 북한군 1개 사단을 격멸했다는 등 전과위주의 전술적 수준의 분석에 머물렀으며 이러한 전투 결과가 국군과 미8군의 재편성 및 전선 조정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제공하였고 차후 낙동강 방어선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작전적 수준의 분석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사료와 공산권에서 입수한 자료⁹⁾를 근거로 정확한 전투경과를 입체적으로 재구성(再構成)하고 작전 및 전술적 관점(觀點)에서 분석(分析) 및 교훈(教訓)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¹⁰⁾

2. 상황 평가

(1) 북한군 상황 평가

북한군은 제2차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¹¹⁾한 후 1950년 7월 7일 이후 UN군에게 금강-소백산맥 선에서의 방어선을 구축할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대전지역에서의 대포위작전(大포圍作戰)을 위주로 하는 제3차 작전방침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신속한 공격속도와 맹렬한 타격을 가하여 대전-소백산맥 선에서 UN군 주력을 포위·섬멸하고 전주, 논산, 문경, 울진 남방으로 진출한다는 것이었다. 주공방향은 서부전선의 천안-대전방향으로 지향하였다.¹²⁾

이를 위해 대전 포위공격에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서부전선에서는 전세의 우위를 유지하려 하였다. 북한군은 주력을 경부 1번 국도를 연하여 대구방향으로 집중시키는 동시에 제6사단과 제4사단을 동시에 우회(迂廻)시켜 제4차 작전¹³⁾을 준비하고 있었다.

5) 이들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2권(국방부, 1979), 『진천-화령장 전투』(국방부, 1991), 『한국전사』(교학사, 1984), 『한국전쟁비사: 낙동강에서 38선』 제2권(경인출판사, 1992), 『민족의 증언』 2편(중앙일보사, 1985), 『한국전쟁사』(육군사관학교, 1987), 『한국전쟁사 부도』(육군사관학교, 1998), 『6·25전쟁사 부도』(육군대학, 2007), 사사키 하루다카(佐佐木春隆) 저, 강창구 역, 『한국전 비사』(병학사, 1977) 등.

6) 『6·25전쟁사 부도: 교참 7-0-14』(육군대학, 2007), pp. 58-59.

7) 『한국전쟁비사』 1권(경인문화사, 1992), 『한국전쟁』 1권(명성출판사, 1991), 『한국전쟁』 1권(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1987)과 *The Forgotten War*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Annapolis, 2003) 등 다수의 전사 책에는 아예 화령장 전투가 누락되어 있음.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08년에 발간한 『6·25전쟁사: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4권에는 작전경과와 전투서열 등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음.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북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현대편 조국해방전사 1』 25권 등.

10) 『작전: 미 야전교범 3-0』에 의하면 '전쟁수준은 전략적 수준, 작전적 수준, 전술적 수준으로 구분한다. 작전적 수준은 전략적 최종상태의 달성에 전술적 부대들의 활동을 연계시킨다'라고 기술되어 있다(육군대학, 2008, pp. 175-184). 또한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발간한 『작전술: 교육참고 8-3-18』에는 '작전술은 작전적 수준에 적용된다. 작전술은 설정된 작전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전략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목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육군교육사령부, 2007, pp. 총-2).

11) 북한군은 7월 6일까지 평택-안성-음성-충주북방-제천-영월-삼척 남방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음.

12) 육본정보참모부, 『북괴 6·25 남침분석』(육군본부, 1970), p. 157.

13) 북한군의 4차 작전계획은 김천-대구 방면으로 주공을 지향하고 낙동강 이북/이서지역의 UN군을 격멸하며 급속히 낙동강을 도하, 총공격의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며 대구 및 부산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1950. 7. 21~8. 20일까지 실시한 공격작전으로 북한군 제 1, 2군단, 11개 보병사단과 1개 기갑사단 및 기갑연대 등이 투입되었음.

북한군 전선사령관 김책(金策)은 금강과 소백산맥이 맞닿은 지역일대에 아군의 주력을 몰아넣고 일대 섬멸전을 감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제1군단과 제2군단을 지휘하고 각 군단은 4개 보병사단과 기갑부대를 각각 지휘하였다. 전선투입 사단은 10개 보병사단과 1개 기갑사단이었으며 3개 예비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⁴⁾

그러던 중 그들은 미원-문경사이의 약 30km 구간에 UN군이 없음을 탐지하고 이곳에 제15사단¹⁵⁾을 긴급 투입하여 상주를 유린한 후 그대로 대구로 남하시켜 한·미군을 분리시켜 한·미 간의 협조된 방어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계획하였다.

(2) UN군(軍) 상황 평가

당시 UN군의 상황을 보면, 미 제24사단은 대전과 금강 일대에서 적 제1군단(군단장, 중장 김웅)과 대치하고 있었고, 한국군 제1군단(군단장, 소장 김홍일)은 제1사단(사단장, 준장 백선엽)이 미원지구에서 적 제15사단을, 좌측의 제2사단(사단장, 대령 이한림)이 문의(청주 남쪽 13km)에서 적 제2사단을 각각 저지하고, 수도사단(사단장, 준장 김석원)은 제17연대와 같이 보은에서 병력을 재편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군단(군단장, 준장 김백일)은 제8사단(사단장, 대령 이성가, 본명: 이정일)을 우측인 영주지구에, 제6사단(사단장, 대령 김종오)을 좌측인 문경지구에 각각 배치하여 북한군 제2군단(군단장, 중장 김무정) 이하의 4개 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¹⁶⁾

14) 육본정보참모부, 『북괴 6·25 남침분석』(육군본부, 1970), pp. 181-182.

15) 당시 제15사단은 동라리 전투에서 한국군 제6사단에게 1개 연대가 섬멸적인 타격을 받고 새로이 병력과 장비를 보충받고 있었음. 북한군 제12사단이 음성-괴산지구 전투에서 미 공군의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예비인 제15사단을 이 지역에 투입하기로 결정함.

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4권(국방부, 2008), pp. 223-230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7월 초까지 한국에 파병된 UN군 지상부대는 미 제24사단(사단장, 소장 William F. Dean)에 이어 미 제25사단(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이 7월 9일 부산에 상륙하여 북상 중에 있었고, 미 제1기병사단(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이 곧 도착 예정이었다.

7월 8일부로 맥아더 장군은 UN군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7월 13일부로 한국에 입국한 워커 장군이 미 제8군의 지휘권을 인수하여 사령부를 대구로 이동시켰으며, 7월 17일부로 한국군의 지휘권이 미 제8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¹⁷⁾

이 시기 중동부 전선에서는 “최대한 타격을 주면서 신속하게 진격하여 국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북한군의 공격개념과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시켜 UN군의 증원하에 전세를 반전시킨다”는 국군의 방어개념이 맞서고 있었다.¹⁸⁾

이 당시, 제6사단은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고전하고 있었는데, 15일에는 소백산맥 마루턱인 이화령과 조령에서 북한군 제1사단과 격전을 벌였으나 결국 조령을 빼앗겼고 16일에는 북한군 제13사단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바람에 문경마저 빼앗겨 이날 밤에는 소백산맥에서 물러나 문경-점촌간의 영강선으로 철수(撤收)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군 제1사단이 괴산에서 미원으로 갑자기 후퇴하자 괴산에서 속리산 동쪽 산기슭을 지나 상주에 이르는 접근로에 공간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중동부 전선(戰線)의 북한군 동향(動向)을 주시하고 있던 육군본부는 보은-상주 사이에 약 30km의 간격(間隔)이 형성되어 있음을 뒤늦게 파악하고 긴급 조치(措置)를

17)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A, 1992), pp. 110-112. 1952년 7월 12일 미 제24사단이 금강선에서 철수함을 계기로 7월 13일 00:01부로 워커 장군이 맥아더 장군의 구두명령으로 주한 미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게 됨.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한국대통령 이승만의 요청에 의해 7월 14일 UN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된 후 3일이 지난 7월 17일 미8군 사령관인 워커 장군에게 재이양되었음.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4권(국방부, 2008), pp. 223-224.

강구하게 되었다.

(3) 화령장 지역의 지형평가(地形評價)

1) 지형 분석

화령장은 경상북도 상주군 화서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이곳에서 20km 동쪽에는 상주(尙州)가 있고, 서쪽 20km에는 보은(報恩)이 위치해 있으며, 북쪽은 속리산 및 갈령, 남쪽은 추풍령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였다.

도로망은 보은-화령장-상주를 잇는 25번 도로와 괴산-갈령-화령장-상주를 잇는 977번 도로가 발달되어 있었다. 화령장 주변에는 속리산(1,058m), 구병산(877m), 871고지, 봉황산(740m), 형제봉(850m) 등 500~1,000m 안팎의 험준한 산들이 산재해 있다.

주요 하천으로는 소하천(이안천)이 남으로 흘러 낙동강과 합류되고 북으로 흐르는 소하천(농암천)은 영강천에 합류하여 역시 낙동강에 이른다. 따라서 갈령에서 977번 도로와 25번 도로가 만나는 상곡리까지의 10여 km는 도로와 하천이 병행해 있는 협소한 골짜기로서 도로 연변에 마을과 소규모의 논과 밭이 산재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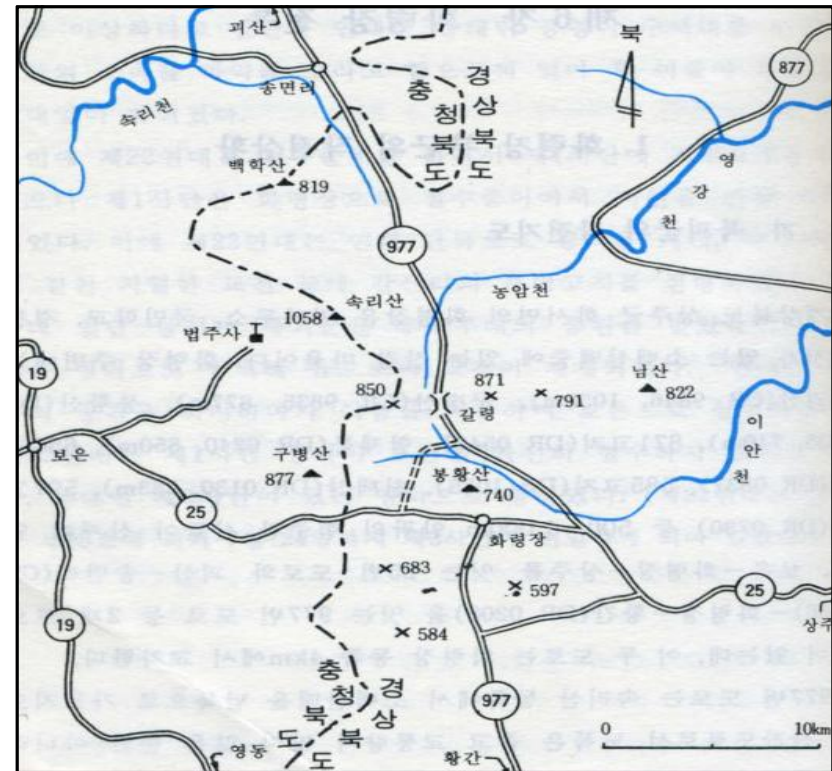
2) 작전적 지형 평가

화령장은 향후 6·25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었으나 국군 제1군단은 괴산-상주 도로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북한 제15사단이 최초 계획대로 기동을 실시하여 화령장-상주를 돌파하여 김천을 조기에 점령한다면 대전지역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미 제24사단 주력의 퇴로가 차단되고 각종 물자의 보급선이 차단될 뿐 아니라 미군의 전방 증원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UN군의 전선은 동서로 분리되어 차후 작전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¹⁹⁾

반면 화령장에서의 승리는 제15사단으로 하여금 작전 템포(tempo)를 한 단계 늦추게 하여 상주-김천-대구를 잇는 축선을 북한군이 조기 점령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나아가 미8군 사령관이 계획 중인 낙동강방어선(防禦線)을 형성(形成)할 귀중한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할 수 있었다.²⁰⁾

[요도 1] 화령장 부근의 지형



19) 당시 경부선을 중심으로 서부 전선은 미군이, 우측은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었다.

20) 대전에서 패배한 미 제24사단이 경부선을 따라 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7월 26일 전군에 낙동강 방어선 형성을 위해 계획된 철수 준비명령을 하달하게 되었고 유엔군과 북한군 간의 시간과 공간을 다투는 마지막 숨 가쁜 경주가 시작됨.

3. 북한군의 전략 기도와 아군의 대응

(1) 북한군의 공격패턴 변화

북한군은 전쟁 초기에 파죽지세와 같았던 당초의 위력이 날로 쇠퇴하고 기동력이 크게 위축되자 제3단계 작전 중반부터는 국군 방어진역인 3번과 5번 도로축선에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었다.²¹⁾

이 무렵 김일성은 북한군 전선사령부가 있던 수안보(충주 남방)로 전선 사령부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하였다.

“전선 동부에서 행동하는 연합부대들은 적을 정면으로만 밀고 나가지 말고 산길을 따라 대담하게 우회기동하여 측면과 배후로부터 타격함으로써 적의 유생력량을 포위 소멸하고 방어를 와해시키며 공격속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각 병종간의 능숙한 협동동작으로 적을 정면과 측면으로부터 강력히 타격하는 동시에 일부 부대를 대전 남쪽으로 우회기동시켜 적의 퇴로를 막고 새 역량이 증원되지 못하게 하여 적들을 완전히 포위, 소멸하라.”²²⁾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전선 사령관 김책은 사령부를 충주에서 수안보로 추진하고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은 제15사단을 미원-상주 방면에, 제1사단과 제13사단을 문경-함창 방면에, 제8사단과 제12사단을 풍기-안동 방면에, 그리고 제1군단의 제2사단을 청주-보은 방면으로 각각 투입해 소백산 줄기의 동남부지역에서 국군을 포위·섬멸하고 대구 방향으로

신속히 진출하고자 하였다.²³⁾

즉, 북한군은 도로를 연한 정면공격을 지양하고 대담하게 산간도로를 이용, 적 후방을 우회하여 포위, 섬멸토록 할 것이며 공격 속도를 가일층 높여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지 말 것과 과감한 우회와 침투전법을 활용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제반수단을 다해서 공격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⁴⁾

(2) 북한군의 전략기도 분석

북한군이 소백산맥 선을 통과하기 위한 제3차 작전의 방침은 “전선의 인민군 연합부대들이 적들에게 숨 돌릴 사이를 주지 않고 높은 기동력으로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여 금강과 소백산 줄기 계선을 유지하려는 미제 침략자들이 기도를 파탄시키고 적의 기본집단을 대전과 소백산 줄기의 동남부에서 각개 포위, 소멸함으로써 남해와 대구 방향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²⁵⁾

이를 작전적(作戰的)²⁶⁾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북한군은 상주(화령장 일대)를 관통해 제15사단의 주력이 김천으로 진출하여 대전에서 전투 중인 미군 제24사단의 퇴로를 차단 및 격멸시키고, 향후 UN군이 본격적으로 증원되어 포항-대구-창녕-마산을 연하는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기 전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대전-김천-대구-부산까지 최단 시간 내에 점령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화시키려는 기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술적(戰術的)으로는 일점 양면전, 우회기동, 포위 등의 전술을 사용하였으며 침투, 매복, 급습, 게릴라전 등을 적극적이면서도 교묘하게 배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4권(국방부, 2008), p. 223.

22)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현대편 조국해방전사 1』 25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 175-176.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4권(국방부, 2008), pp. 223-224.

24) 육본정보참모부, 『북괴 6·25 남침분석』(육군본부, 1970), p. 183.

25) 앞의 책, pp. 175-176.

26) 북한군이 그들의 작전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작전 기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함.

합하였다. 특히 공격개시 이전에 지휘소, 관측소, 포진지, 박격포진지 등을 사전에 격파, 유린, 제압하고 모든 유선을 단절하여 지휘 및 사격지휘 기능을 마비시켜 진승(戰勝) 여건을 사전에 조성(造成)하였다.²⁷⁾

(3) 육군본부의 대응 및 조치

당시 육군본부는 종합적인 상황 평가 결과, 화령장을 통과하여 상주 지역을 적이 점령하게 되면 함창 지역에서 적을 저지하고 있는 국군 제6사단의 퇴로와 경부축선에서 작전하고 있는 미군 주력의 퇴로가 차단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때마침 화령장 방향으로 북한군이 기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²⁸⁾한 육군본부는 우선적으로 상주를 경비 중에 있던 미 제25사단 예하 제24연대(연대장 대령 White)의 제2대대를 갈령으로 급파하도록 지시하였다.²⁹⁾ 그러나 급파된 미 제24연대³⁰⁾는 산악을 연한 통로를 따라 북상하다가 16일 12시경에 적으로부터 총포 세례를 받자 전의를 상실하고 괴란 상태로 후퇴해버려 사실상 남하하는 적 제15사단의 주력을 저지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였다.

27) 육본정보참모부, 『북괴 6·25 남침분석』(육군본부, 1970), p. 181.

28) 사사키 하루다카(佐佐木春隆) 저, 강창구 역, 『한국전 비사: 반격과 휴전』 하권(병학사, 1977), p. 199에 의하면 국군 제1군단의 항공정찰 요청과 제1군단 수색대대장의 정찰 결과, 7월 15일 괴산 남쪽을 4열중대로 남하 중인 북한군을 발견하였음.

29) 앞의 책, pp. 199-202.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전사 책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음.

30) 연대장 화이트 대령을 제외한 기타 요원은 전원이 흑인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7월 12일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곧 바로 상주로 이동하여 괴산 일대를 방어케 하였으나 적의 공격을 받고는 철수함. 7월 21일에는 3대대가 예천-함창 부근을 방어하고 있다가 임의로 철수하였고, 22일에는 2대대가 상주-갈령 일대에서 한국군 제17연대와 북진 중에도 적의 경기관총의 공격을 받고 무질서하게 철수하자 연대장이 현지에 출동하여 지휘조치하여 겨우 수습함.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한국전쟁-38선 초기전투와 지연작전』 1권 증보판(명성출판사, 1991), pp. 299-301.

이에 제2군단장은 육본에 병력 증파를 긴급 요청(要請)하게 되었고, 사태의 긴박성을 인지한 정일권 참모총장은 신속하게 부대 배치를 조정하였다.³¹⁾

육군본부는 국군 제6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문경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군단에 배속되어 청주전투에 투입되어 있는 국군 제17연대를 7월 16일 24:00부로 제2군단으로 배속 전환하여 상주 북방의 함창에 7월 17일 06시까지 도착하도록 작전명령(육본 작명 제47호)을 하달하였다. 육본 작전명령 제47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 적 주력의 일부는 문경에 침입하여 남하를 기도 중임.
나. 제6사단은 차적(此敵)에 대하여 맹렬한 반격을 가하고 있음.
2.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여 차전투를 지원하려 함.
3. 제1군단장은 예하사단 중 보병 제17연대를 명조(明朝) 06:00까지 함창에 도착시켜 제2군단장은 전기병력을 통합지휘(統指指揮)하여 군 예비대로 사용하라.³²⁾ (이하 생략)

이와 함께 정일권 참모총장은 상황의 긴박성을 깨닫고 보좌관 황헌천 대령을 제2군단에 파견하여 전황을 수시 보고하도록 하였다.³³⁾

제17연대가 상곡리 지역에서 적을 1차적으로 격멸한 이후 육군본부는 7월 19일에 작전명령 제55호³⁴⁾를 하달하였다. 그 요지는 제1군단장에게 예하 수도사단 및 야전포병 1개 중대를 이동시켜 제2군단에 배속하고 동시에 군단 작전지역 내에 있는 제17연대를 통합 지휘하여 화령장 지역으로 남하하는 적을 포착, 섬멸하는 것이었다.

31) 사사키 하루다카(佐佐木春隆) 저, 강창구 역, 『한국전 비사: 반격과 휴전』 하권(병학사, 1977), pp. 202-203.

3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47호(1950.7.16. 24:00).

33) 안용현, 『한국전쟁비사: 낙동강에서 38선』 제2권(경인출판사, 1992), pp. 46-48.

34)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5호(1950.7.19. 16: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4권(pp. 738-739)에서 재인용함.

요컨대, 참모총장의 의도는 뒤늦게나마 보은-상주-김천 축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당시 가용한 예비대가 없는 관계로 청주지역에 투입되어 있던 제17연대를 긴급 투입하여 화령장 지역에서 적 제15사단을 포착, 섬멸하고자 한 것이다.

(4) 제17연대장의 전술적 조치

제2군단으로 배속(配屬) 전환 명령을 받은 제17연대는 7월 16일까지 1개 대대만 보은에 집결하였고 아직 청주부근 전투에 참가한 2개 대대는 철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제17연대장(대리 중령 김희준)³⁵⁾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제1군단장(소장 김홍일)에게 즉각 보고한 후, 보은에서 정비 중인 제1대대(대대장 소령 이관수 육사3기, 대령 예편)를 함창으로 먼저 출발시키고, 청주에서 철수 중에 있는 제2대대(대대장 소령 송호립)와 제3대대(대대장 소령 오익경)는 집결되는 대로 즉시 후속하도록 조치하였다.³⁶⁾

요컨대, 사태의 시급함을 인지한 제17연대장은 연대 당시 상황을 적시에 상급지휘관에게 보고를 한 후 군단으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아 가용한 1개 대대를 먼저 이동시키고 나머지 부대를 후속토록 하였다. 연대장은 화령장 일대를 먼저 점령한 후 남하하는 적을 섬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대장의 민첩한 조치와 행동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5) 당시 연대장인 백인엽 대령은 부상으로 인해 후송되어 부연대장인 김희준 중령이 연대장 대리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음.

36) 제17연대는 7월 15일부터 제1군단사령부가 위치한 보은으로 병력을 집결시켰으나 연대 집결지에는 진천지구 전투에서 손실이 컸던 제1대대만이 부대정비를 위해 집결 중이었으며,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고은리에서 아직 철수하지 못한 상태였음. 아군은 당시 풍기에서 제8사단, 문경에서 제6사단이 적의 완강한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 지역의 방어 문제가 더 시급하였기 때문에 제17연대를 2군단 지역으로 증원한 것으로 판단됨.

4. 화령장 전투 경과(經過)

(1) 상곡리 전투

1) 제17독립연대의 이동

제1대대는 연대 선두부대로서 17일 04:00경 제2군단에서 동원된 차량(제6사단 차량과 민간차량)으로 보은을 출발하였다.

17일 07:00경 제1대대가 화령장을 막 지나고 있을 때, 한 시골 노인으로부터 “어젯밤 북괴군이 밤새도록 우리 마을을 지나 상주쪽으로 내려갔다”는 신고³⁷⁾를 받은 대대장은 군단 작전참모로부터 경고³⁸⁾를 받은 바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화령장 화서지사로 갔다. 지서장은 “어젯밤에 상당수의 북괴군이 상주 쪽으로 내려갔다. 지금도 군·경·청년단으로 구성된 정보팀이 적들이 지나간 통로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2군단 정보대가 화령장에 와서 활동한 내용과 “배상록 대위가 어제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함창으로 갔다”고 하면서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였다.

이에 대대장 이관수 소령은 지형을 정찰하고 적정을 확인한 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일단 부대를 화령초등학교에 집결시킨 후 주민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대대장은 청년단장 김기영의 안내를 받아 중대장과 경계병을 대동하고 상곡리로 정찰을 나갔다.

37) 임봉림이라는 시골 노인이 지나가는 대대 차량을 세우고 신고함.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4권, p. 254에 의하면, 해당부대는 보은과 화령장 중간지점인 관기리를 지날 무렵, 뒤쫓아 온 제1군단 작전참모 김종갑(중장 예편) 대령으로부터 “적이 괴산에서 갈령으로 진출했으며 이미 화령장을 지나갔을지도 모르니 조심해서 행군하라”는 주의를 받았음.

2) 제1대대의 공격준비(攻擊準備)

대대장(大隊長) 일행이 적이 통과하였다는 중달리-상곡교 일대를 정찰하고 있을 때, 11:00시경 977번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북상하는 북한군 전령 1명을 생포하여 심문한 결과 그의 소속은 북한군 제15사단 제48연대(연대장 대좌 김치규)이고, 연대의 임무는 상주를 점령하는 것이며, 연대의 주력부대는 이날 오후에는 선발대를 후속하여 상주로 진출하며, 금곡리 일대에서 휴식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³⁹⁾

이로써 적의 기도(企圖)와 상주로 내려간 부대(部隊)의 병력 규모(規模)를 알게 된 대대장 이관수 소령은 휴식 예정지역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적 제48연대의 주력을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대대장은 이 결심을 차후에 연대에 보고하기로 하고, 우선 12:00경에 중대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下達)하였다.

〈제1대대장(大隊長)의 명령(요지)〉

1. 적은 상주를 점령할 목적으로 1개 대대를 이미 상주 방면으로 침투시킨 데 이어 후속부대를 계속 남하시킬 것이 예상된다.
2. 대대는 상곡리 일대에서 343고지를 점령하여 화령장으로 침입하려는 적을 저지·격퇴하려 한다.
3. 제1중대는 343고지 동측 남반부(390고지)를 점령하여 남하하는 적을 격멸하라.
4. 제3중대는 343고지 동측 북반부(410고지)를 점령하여 남하하는 적을 격멸하라.
5. 제4중대는 343고지에서 1·3중대를 지원(支援)하라.
6. 제2중대 : 대대 예비로서 390고지에 배치(8부 능선), 의명 투입할 준비를 하라.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4권(국방부, 2008), pp. 256-257.

7. 협조지시(協調指示)

- 가. 각 중대는 3부 능선에 진지를 편성하고 위장을 철저히 하라.
- 나. 사격 군기를 엄수하라.

8. 지휘 및 통신 : 대대장은 390고지에 위치한다.⁴⁰⁾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각 중대는 14:00경에 진지구축 및 위장 등 전투준비를 완료하였다. 도로 서쪽 급경사면의 병력배치 면에서 도로까지는 100~200m이고, 병력배치선과 도로 사이에는 외지선을 연하여 작은 시냇물(이안천)이 흐르고 있어서 기습하기에는 알맞은 장소였다.

병력배치 중에 연대고문관 스카레키 소령이 대대에 당도하여 매복계획을 확인한 후 보은으로 되돌아갔다.

3) 상곡리 기습전

16:00가 조금 지나자 예상한대로 갈령 계곡으로부터 북한군의 행군대열이 나타났다. 이들은 16일 삼송리에 도달해 17일 오후 전투행동을 개시한 북한군 제15사단 주력의 선두부대인 48연대였다.⁴¹⁾ 도보부대와 더불어 40여 개의 우마차에 각종 포와 탄약을 적재하고 남하한 북한군은 국군의 매복지역 정면인 하송리의 송계초등학교(현 화령초교 송계분교)와 상곡리 일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한편, 대대장 이관수 소령은 390고지에서 쌍안경으로 북한군의 행동을 감시하며 좀 더 좋은 여건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19:30경, 북한군 병사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집결하기 시작하자, 대대장의 사격 명령

4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 전투』(국방부, 1991), pp. 207-209.

41)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권(군사편찬연구소, 2001, p. 344)에 의하면 7월 16일 삼송리에 도착한 제15사단의 주력은 괴산 방면에 있던 포병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으며 야간을 이용해 포병이 도착하자마자 7월 17일 오후에 전투행동을 재개하였음.

에 따라 예하 장병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고 박격포와 기관총도 함께 사격을 하였다.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북한군은 불의의 집중사격을 받고 저항 한번 못한 채 대부분 사살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40여 필의 말과 소들이 포성에 놀라 날뛴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다. 제1대대는 1시간 가까이 적을 섬멸(殲滅)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연대장은 제1대대장에게 적의 퇴로(退路)를 차단한 후 명일 아침에 소탕작전(掃蕩作戰)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16일 밤에 청주전투 후 보은에 집결하고 있던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의거 17일 21:30에 이동 개시하여 18일 02:00~03:00 사이에 화령장에 도착하였다.

4) 전과 확대(戰果 擴大)

7월 18일 아침, 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제1대대로 하여금 상곡리 일대의 잔적을 소탕하게 하였다. 제3대대는 상주 방향으로 진출한 1개 대대의 적을 포착 및 격멸하도록 하며, 청주전투에서 손실이 컸던 제2대대는 연대예비로서 화령초등학교 일대에 집결 대기시켰다.

제3대대장(大隊長) 오익경 소령은 화령장에 도착하자마자 연대장으로 부터 “상주 방향으로 남하한 적을 포착 격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부터 행동을 개시하였다. 07:00경, 제3대대는 갈방리(화령장 동남쪽 12km)까지 진출하였는데 이곳에서 상주 방향에서 북상하는 미 제25사단 예하의 포병대대를 만났다. 그들로부터 “상주에서 이곳으로 진출시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았으나 마침 그곳에 출동한 국군 제6사단 예하의 보병 1개 대대가 적을 격퇴하였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었다”고 통보를 받고 이를 연대장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상주 방향으로 연대병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3대대에게 상곡리로 복귀와 함께 제1대대와 함께 잔적 소탕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요도 2] 상곡리 기습 공격



*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권을 기초로 재편집.

제1대대장 이관수 소령은 제2중대가 적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증원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1중대와 제3중대가 잔적소탕을 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주민의 협조하에 마을과 삼밭을 샅샅이 뒤져 숨어 있는 적을 사살 또는 생포하였다.

포로 심문 결과 이들은 북한군 제15사단 제48연대의 보병 2개 대대와 통신중대, 대전차포중대 및 기마대인 것이 밝혀졌으며, 도주한 병력은 대부분 비무장이며 부상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로와 전사자들의 대부분은 17~18세 정도의 젊은이들이었고, 하사관급 간부들은 중공군의 팔로군 메달을 소지하고 있었다.⁴²⁾

한편, 585고지를 공격한 제3대대는 10여 명의 포로와 수십 명의 잔적을 소탕하였을 뿐 지형이 험한데다 소규모 단위로 도주하는 적을 포착하기가 어려워 더 이상 전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제3대대 9중대 3소대는 동굴 속에 숨은 10여 명의 적을 발견하고 투항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오히려 이들로 부터 소대장 홍순원 중위가 총격을 당했다.

이 전투에서 제1대대는 17~18일 양일간 북한군(北韓軍) 250여 명을 사살하고 포로 30명을 획득하였으며, 박격포 20문, 45밀리 대전차포 7문, 소총 1,200여 정 그리고 다량의 통신장비와 군수품을 노획(擄獲)하는 전과를 올렸다.⁴³⁾

한편 육군본부는 제1군단 예비인 수도사단을 화령장에 투입(投入)하여 이곳의 위기를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제2군단지역의 상황이 악화되어 계획을 변경하였다.⁴⁴⁾

42) 이 메달은 이들이 중공군에 있다가 북한군에 편입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43) 현재 이 전투에 대한 전투상보나 기타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때문에 전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이 없어 군사편찬연구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리하였음. 육군 부대사(제17연대나 보병1사단)에는 전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연대장이었던 김희준씨는 “민족의 증언”에서 적 48연대 주력(1,000여 명 중 반수 이상)이라고 하며, 당시 대대장이관수씨는 사살 1,500명, 노획장비 20트럭이라고 주장함. 육군대학 전사부도에는 700명으로 명시됨.

44)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1호(1950.7.18. 17:00)에 의거 이동준비 중인 수도사단은 이어 하달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5호(1950.7.19. 16:00)에 의거 제2군단지역으로 이동함.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2권(국방부, 1979) 부록 14호에서 재인용함.

(2) 동관리 전투

1) 차후 작전을 위한 연대장의 조치

7월 18일 제17연대장의 정찰 명령에 의거 연대 정보주임 유창훈(육사 5기, 소장 예편) 대위가 인솔하는 수색대가 갈령을 수색 정찰하는 과정에서 12:30경 자전거를 타고 갈령을 넘어오는 적병 2명을 생포하였다.⁴⁵⁾ 이들은 북한군 제15사단장 박성철 소장이 제48연대장 김치구 중좌에게 보내는 전령으로서 2통의 문서를 휴대하고 있었다. 1통은 북한군 제15사단장이 제48연대장에게 중간보고를 독촉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1통은 작전명령서로써 후속하는 제45연대(연대장: 대좌 이철룡)와 함께 김천방향으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라는 내용이였다.⁴⁶⁾ 이 노획문서로 인하여 북한군은 그들의 제48연대가 격멸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과 제45연대도 곧 이곳을 통과할 것이란 것을 알게 된 제17연대장은 후속하게 될 북한군 제45연대마저 포착 섬멸하기로 결심하였다. 예비인 제2대대를 봉황산 북쪽으로 진출시켜 후속하는 적을 매복 공격하도록 하고, 제1대대는 상곡리의 원위치를 확보토록 하여 잔적 준동에 대비하였으며, 제3대대는 연대의 예비로서 화령장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제2대대는 화령초등학교에서 부대정비를 하고 있던 중 15:00경에 연대장

45) 중앙일보에서 발간한 『민족의 증언 2편』(중앙일보사, 1985), pp. 26-27에서 당시 연대 정보참모였던 유창훈 대위(주월백마사단장 역임)는 “사병 3명을 데리고 갈령 아래 매복하였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적병 2명을 잡았어요. 그들의 몸에서 적 제15사단장 박성철 소장이 연대장에게 보내는 서신과 작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손쉽게 또 적의 후속부대를 포위 기습해 섬멸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함.

46) 『진천-화령장 전투』(국방부, 1991)와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2권(국방부, 1979) 그리고 관련 연구논문 등에는 북한군 제15사단의 편성은 제48연대, 제49연대, 제50연대로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적측 문서인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권(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308-309과 342-344)에 기록된 북한군 제15사단의 편성은 제45연대, 제48연대, 제50연대임. 이에 근거하여 북한군 제49연대를 제45연대로 수정하였음.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구두 명령을 받았다.⁴⁷⁾ 즉, 포로진술에 의하면 적 제15사단 예하 제45연대가 이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제2대대는 7월 18일 20:00까지 봉황산 북쪽을 점령하고 이 적을 포착, 격멸하라. 통신은 유선으로 하되 상황이 전개되면 무선사용을 허용한다.

연대장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은 2대대장 송호립 소령은 청주 전투에서 철수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로 인해 요양 중이었고, 부대대장 이동호 대위가 청주 전투에서 전사하였기 때문에 대대작전장교인 이형주 중위가 대대를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대장은 참모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차량에 올라 지형정찰을 실시한 후 지역 청년단원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동관리-하송리간 3km의 지역에 진지를 선정하였다.

제2대대장이 선정한 진지는 봉황산 북동쪽의 와지선으로서, 진지 아래로는 소하천(이안천)이 그 바로 동쪽의 977번 도로와 병행하여 흐르며, 도로 동쪽으로는 논이 있었다. 그리고 진지 주변은 잡목이 우거져 있어서 은폐에 안성맞춤이었고, 진지와 도로까지의 거리는 보통 20~50m이고, 먼 곳이 100m 정도여서 기습사격하기에 알맞은 거리였다.

송호립 소령은 후에 정찰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대장으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았을 때는 나는 전혀 싸울 의욕이 없었다. 왜냐하면 청주 남쪽의 고은리 전투에서 80여 명의 병력을 잃은 충격이 큰데다 나 자신이 차량전복사고로 인한 전신타박상으로 거동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의 대부대가 이곳을 통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좌시할 수 없어서 부자유스러움을 무릅쓰고 참모들의 부축을 받으며 지형정찰을 하였는데, 나는 동관리 계곡을 보는 순간 적이 이 안으로 들어 서기만 하면 1개 연대병력쯤은 문제없이 격멸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이곳에 진지를 점령하기로 했다.”⁴⁸⁾

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 전투』, p. 217.

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송호립 증언록』.

제2대대 병력은 화령장에서 봉황산 동측능선을 넘어 동관리로 진출하여 20:00경부터 좌로부터 제7중대, 제6중대, 제5중대 순으로 배치하였다.⁴⁹⁾ 제7중대의 1개 소대를 746고지 와지선에 배치하고 중화기 중대의 기관총 소대는 중대 간의 간격을 매우도록 하였다. 81밀리 박격포는 갈령 쪽을 사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대관측소는 대대 전 지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봉황산 5부 능선에 설치하였다.

다음날인 7월 19일 06:00, 야간 진지 점령으로 미비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은 각 중대장들에게 “전투준비 태세를 재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지역 내의 주민을 소개시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중대장들은 경계병의 위치, 개인호의 구축상태, 공용화기의 위치, 탄약 보유량, 위장상태, 화력계획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제7중대 지역의 동관리와 제6중대 지역의 송원 마을을 수색하여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하였다.

2) 적 치중대 격멸

제7중대장은 동관리 마을 앞 갈령 쪽에 있는 굴곡진 도로가에 경계병을 배치하였다. 그곳은 장자동으로 들어가는 삼차로 부근으로서 그곳에는 독립가옥이 한 채 있었고, 갈령쪽으로 800미터 정도는 잘 보이는 장소였다.

19일 14:00경, 경계초소에 나가 있던 복진세 병장이 제1소대장 오병진 중위에게 뛰어와서 “말을 탄 군인 2명이 우마차 10여 대를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오중위가 전방을 확인해 보니 말을 탄 장교 2명과 함께 20여 명의 병사들이 달구지를 끌고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들은 북한군의 보급대열로 보였다. 제1소대장이 이들을 관찰하는 사이

49) 제2대대의 배치도가 일부 전사 책에서는 배치 요도가 제7중대, 5중대, 6중대 순으로 다르게 도식되어 있어서 군에서 보유한 1차 사료를 근거로 재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제7중대, 6중대, 5중대 순으로 수정하였음. 잘못 표기된 전사 책은 다음과 같음. 『6·25전쟁사 부도』(육군대학, 2007), 『진천-화령장 전투』(국방부, 1991) 등.

그들은 제7중대 진지 정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이때 어느 병사가 사격을 가하여 선두에서 말을 타고 있는 장교 1명을 쓰러뜨렸고, 제7중대원이 집중사격을 가하여 이들을 모두 쓰러뜨렸다.

이 교전에서 제7중대는 민간인 2명을 포함 적병 19명, 소 2마리, 말 3마리를 사살하였다. 또한 소 2마리와 말 9마리를 잡았으며, 우마차에 실려 있는 많은 양의 탄약과 식량 등을 노획하였다.

제7중대는 노획한 보급품을 우마차에 실어 연대로 후송한 후 매복 진지에서 다시 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때 대대장은 명령 없이 사격할 점을 중시하고 각 중대장들에게 “앞으로 내 명령 없이 사격할 경우에는 해당 중대장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사격군기를 강조하였다. 일선중대를 좀 더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대대관측소를 제7중대 지역으로 옮겼다.

한편, 이날(19일) 18:00경, 제17연대를 방문한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제17연대는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5호에 따라 군단장의 지휘하에 화령장으로 침입하는 적을 계속 저지 격퇴하라”고 명령하였고, 뒤이어 “화령장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수도사단이 제2군단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다”라고 작전계획의 변경을 통보하였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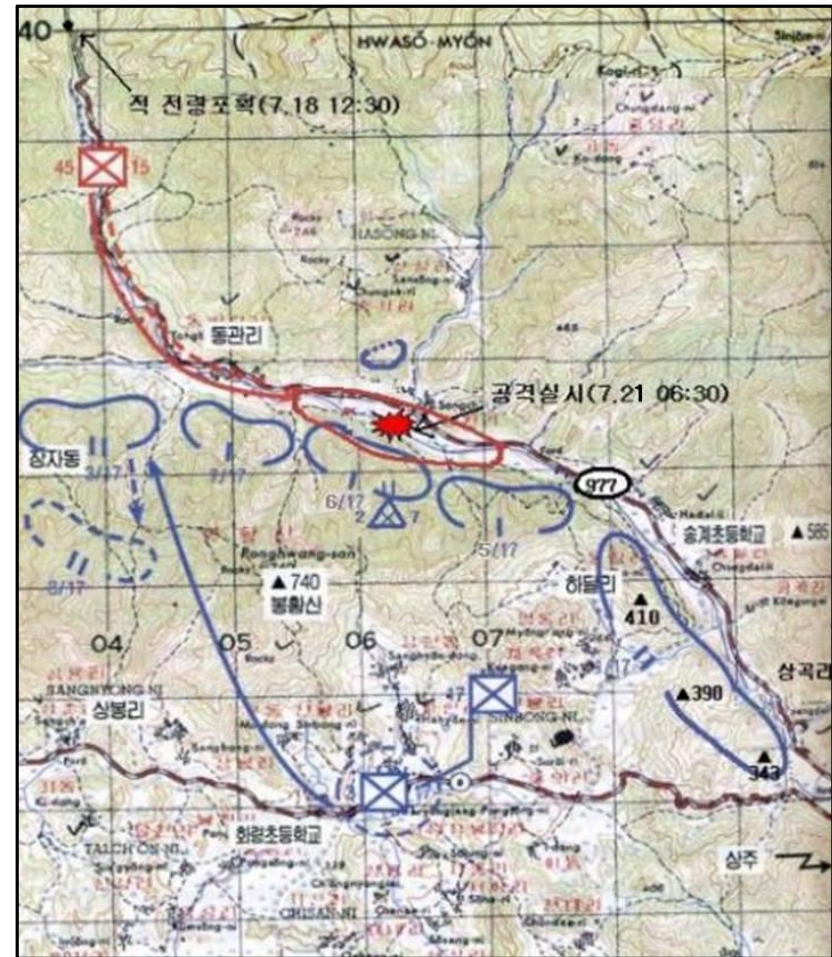
3) 동관리 기습전

7월 20일 하루 종일 진지를 강화하면서 북한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저녁까지도 북한군의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제17연대장은 그날 자정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자 속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21일 새벽녘 별안간 봉황산 너머에서 교전하는 듯한 총성과 폭음이 들려왔다.

한편, 제2대대장은 21일 새벽녘에 연대장에게 “이상 없음”이라는 보고를

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4권(국방부, 2008), p. 261.

[요도 3] 동관리 기습 공격



*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권을 기초로 재편집

하고 난 얼마 후에 좌측의 제7중대장 조경학 중위로부터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부대가 갈령에서 진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대장은 “아군일지도 모르니 피아 식별을 철저히 하고 변동되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라. 그리고 나의 명령 없이는 절대 사격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다음 제6중대와 제5중대에게도 현 상황을 알려주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⁵¹⁾

대대장으로부터 “피아 식별을 확실히 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7중대장 조경학 중위는 “배낭 같은 것을 등에 메고 있다”, “총에 송곳 같은 것을 꽂았다”, “바퀴 달린 기관총을 끌고 가고 있다”는 등의 보고를 받고 이 대열이 북한군인 것을 짐작은 했으나 확신을 할 수가 없었다.⁵²⁾

제2대대장은 대대정면을 통과하고 있는 부대가 북한군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확신이 없어서 사격명령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06:30경 우측 제5중대장으로부터 “그들 선두가 중대 정면을 통과한다”는 다급한 보고를 받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연대장에게 조치를 받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한 대대장은 만약 잘못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사격명령을 하달하였다.⁵³⁾

대대장의 사격 명령에 따라 적색 오성 신호탄 3발이 발사되었고 곧 바로 대대의 모든 화기가 사격을 시작함으로써 동관리 계곡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하였다. 대대는 북쪽 갈령 방향에는 81밀리 박격포로 사격하고 중대 간에는 중기관총으로 교차 사격을 하며 도로 건너의 개활지와 산에는 중대의 60밀리 박격포로 제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화기는 977번 도로를 최저표적사로 사격할 수도 있도록 지가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표적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화망 안에 있는 적은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기습사격을 받은 북한군은 숨을 곳을 찾았지만 적절한 은폐물이 없는데다 근거리에서 사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쓰러져 갔다.

08:00경 안개가 걷힌 후 977번 도로 위와 논바닥에는 시체와 장비가 널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2권(국방부, 1979), pp. 440-441.

52) 당시 국군은 한강 철수 시 배낭을 거의 잃었으며, 배낭이 있는 부대도 부대이동 시는 이를 차량에 적재하고 병사들은 단독군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통례였음.

53) 온창일, 『한민족전쟁사』(집문당, 2001), pp. 622-623.

려 있었다. 제2대대장은 자신은 대대관측소에서 빨간 수기로 부대를 지휘하였고 제6중대로 하여금 잔적소탕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연대 지휘소에 있던 제17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제2대대 지역으로 참모들과 함께 달려갔다. 연대장 일행이 제2대대 지역에 당도하여보니 동관리 계곡에는 시체가 즐비한 가운데 1개 중대가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연대장과 함께 온 미 고문관 스카레키 소령은 “내가 30년간 군대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통쾌한 전투는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wonderful”이란 감탄사를 연발하였다.⁵⁴⁾

제2대대가 7월 21일 14:00경 소탕작전을 끝낸 결과, 적 사살 356명, 포로 26명, 박격포 16문, 반전차포 2문, 기관총 53정, 소총 186정, 무전기 1대, 전화기 1대 등의 전과를 올렸다.⁵⁵⁾ 반면 제2대대는 전사 4명, 부상 30명의

[사진 1] 상주시에 외곽에 위치한 화령장 전적비



54) 중앙일보, 『민족의 증언 2편』(중앙일보사, 1985), pp. 24-27.

55) 전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나 제1군단 전투경과 보고서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음. 당시 대대장이었던 송호림 소령은 “적 1개 연대가 전멸(2,500명)되고, 장비는 기관총 38정을 비롯하여 6트럭분이나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족의 증언’에서 연대장이었던 김희준 중령(예비역 준장)은 “적 2개 대대(1,000여명)를 사살하고 장비 6트럭을 노획했다”고 증언함.

피해를 입었다. 제2대대는 노획한 장비 가운데 박격포, 기관총 등 공용화기와 소총 등을 2 1/2톤 차량 3대에 적재하여 연대본부로 보내고, 탄약과 기타 군수품은 폐기 또는 소각 처리하였다. 이 전과(戰果)로 제17연대는 연대장을 비롯하여 2,600명 전원(全員)이 1계급 특진(特進)하는 영광을 안았다.

4) 장자동 일대 공격 작전 및 전선조정(戰線調整)

15사단 예하 2개 연대의 전투력이 와해된 북한군은 977번 도로 좌우측인 장자동과 동관리를 연하는 선에 병력을 재배치하고 화령장 일대에 대해 다량의 포병 공격을 실시하였다.

한국군은 화령장을 통한 적의 상주점령 기도를 사전에 분쇄하기는 했으나 이미 대전이 함락됨에 따라 전선을 재조정해야만 했다.⁵⁶⁾ 이에 따라 국군 제17연대를 육본의 기동예비대로서 대구로 이동을 시키고, 보은에 있던 국군 제1사단을 화령장 지역으로 투입하여 북한군과 대치하게 하였다.

제1사단 12연대는 장자동 지역에서 형제봉 방향으로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23일에는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였다. 12연대는 24일 재공격을 실시하여 510고지와 685고지를 점령하였으나 최종 목표인 형제봉은 점령하지 못한 채 상호 대치하였다. 우측에 배치된 제1사단 11연대는 하송리 지역에서 공격을 실시하여 23일 저녁 23:00시경에 530고지를 점령하고 24일에는 746고지-871고지-791고지를 연이어 점령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화령장 후방 8~10km 지역에 급편방어 진지를 편성한 후 5일 이상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련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15사단은 이 지역에서 7월 23일까지 전투를 벌였다. 적의 강력한 역

56) 온창일 외, 『한국전쟁사: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 방어』 제3권(행림출판, 1992), pp. 239-240.

습으로 인하여 사단은 7월 22일과 23일 확보지역으로부터 서북 방면으로 8~10km 지점까지 철수하여 도장산(828m)과 747고지(상룡리 동북방 5km, 봉황산)의 동남쪽 사면에서 방어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지역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단 예하부대들은 7월 28일까지 방어전을 전개하였다.”⁵⁷⁾

제1사단도 북한군의 진출을 3일 동안 저지한 국군의 다음 작전계획에 의해 작전을 종료하고 새로 투입된 미 제25사단에게 지역을 인계하고 상주 지역으로 이동했다.⁵⁸⁾

이와 같은 작전 결과, 대전지역에서 전투하던 미군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고 문경지역에서 후퇴 중이던 국군 제2군단의 퇴로를 차단하려 했던 북한군은 최초의 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구미-대구 축선을 아군이 적시에 확보함으로써 UN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5. 작전적/전술적 평가

지금까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 북한의 조선전사 25(현대편 조국해방전사 1),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당시 화령장 전투를 시간대별로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일부 상이한 내용은 군사연구소의 자체 검증과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57)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국방부, 2001), pp. 344-345.

5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1950.7.20. 01:10), “제3항 라. 제1사단은 미 제25사단과 임무교대 후 춘양(1186-1569)으로 이동하여 차기 공세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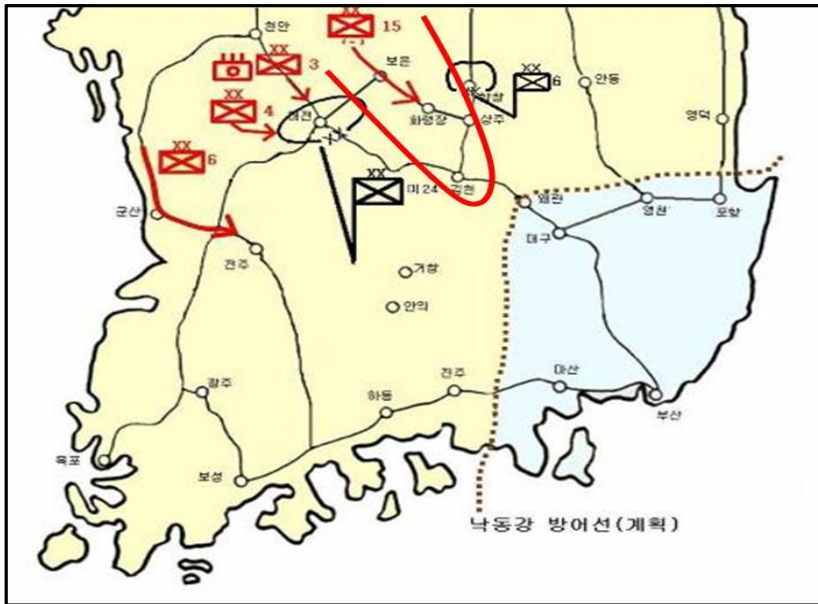
또한 전방부대나 학교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전사연구 취지에 맞게 이를 작전 및 전술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 작전적 평가

1) 북한군의 전략 지도 저지

북한군은 아군의 주력을 대전과 소백산맥 줄기의 동남부에서 각개 포위 소멸하고 그 여세를 일거에 대구 점령 및 낙동강선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⁵⁹⁾

[요도 4] 작전적 평가



* 군사연구소 작성

59)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현대편 조국해방전사 1』 25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69.

북한군은 주공을 김천-대구-부산 방향으로 지향하고 낙동강을 도하하여 UN군 격멸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기본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화령장 지역에서 북한군을 저지 격멸함으로써 북한군이 화령장을 통과 후 상주-김천을 점령하여 대전지역에서 전투 중인 미 제24사단의 주력과 함창지역에서 전투 중인 한국군 제6사단을 포위 섬멸하려는 북한군의 계획을 흔들여 놓았다. 화령장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을 격멸하지 못했더라면 UN군은 동서로 분리되어 차후 작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또한 김천-대구 축선을 조기에 확보하여 UN군의 낙동강방어선 형성을 방해하려는 북한군의 전략기도를 와해할 수 있었다.

2) 국군과 미8군의 재편성 및 전선 조정 시간 획득

화령장 지역에서 북한군의 통과를 저지하고 약 1주일간의 귀중한 시간을 획득함으로써 UN군의 전선 조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UN군은 대전 전투에서 미 제24사단이 패배한 이후 낙동강 방어선을 조기에 준비하기 위해 전선을 조정하고 국군과 미8군의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7월 24일을 기해 국군 제1군단(수도사단, 제8사단)은 동부전선, 제2군단(제1사단, 제6사단)은 중부전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제3사단은 육군 직할부대로서 동해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당시 국군은 2개 군단, 5개 사단으로 재편성되었고 함창-예천-안동 북방-영덕을 연하는 선에서 낙동강선(線)을 고수(固守)하기로 결정하였다.⁶⁰⁾

미8군 역시 7월 20일 이후 포항으로 상륙한 제1기병사단을 제24사단과 교대시켜 김천지역에 배치하고 제 24사단은 의성, 군위지역에서 재편성케 하였으며 제25사단을 상주지역에 배치하여 국군을 증원하도록 조치하였다.⁶¹⁾

60) 육본정보참모부, 『북괴 6·25 남침분석』(육군본부, 1970), p. 182.

61) 앞의 책, pp. 182-183.

3) 낙동강 방어선 형성에 기여

이러한 화령장 전투의 승리는 전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곧바로 낙동강 방어선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당시 부산교두보 확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UN군은 후퇴를 계속하면서 미 본토로부터의 증원군 전개를 위한 시간과 낙동강 방어선 구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당시 미8군사령관인 워커 장군은 “우리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다(We are fighting a battle against time). 더 이상의 철수, 후퇴는 있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물러 설 곳도 없다”라고 말하였을 정도로 UN군은 병력의 증원을 위해 고심하였다.⁶²⁾ UN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예정부대였던 미 제1해병사단과 제2사단을 즉각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

(2) 전술적 평가

1) 지속적인 정보(情報) 수집 및 활용

화령장 전투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원칙을 잘 적용한 성공적인 전례이다. 적보다 우수한 정보 수집은 승리의 기초이다. 따라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시적절한 판단과 결심을 통해 적보다 먼저 행동하고 주도권(主導權)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적의 실체와 작전지역 정보뿐만 아니라 민·관의 다양한 정보환경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6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 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A, 1992), pp.205-208. 7월 27일 맥아더 장군, 알몬드 장군과 워커 장군만이 참석한 90분간의 회의 시 미8군사령부를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한반도를 사수할 것을 결정함. 회의 이후 예하부대에 ‘현 전선을 사수하라’고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방송 매체에서 ‘Stand or Die’란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음.

제17연대 1대대장은 상급부대의 첩보(諜報)를 입수하고 수색 매복을 실시하여 때마침 이동하는 북한군 전령을 2차레에 걸쳐 포획하여 귀중한 적 부대의 이동계획을 획득할 수 있었다. 대대장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이장, 청년단장, 주민들의 도움을 적극 요청하였고 청년단장과 현지 경찰을 실시하여 그 지역에 977번 도로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수집된 첩보(諜報)를 토대로 상황을 실시간(Real Time)으로 전파함과 아울러 적시에 매복진지를 준비하여 성공적인 기습공격을 달성할 수 있었다.

2) 지형을 이용한 기습공격(奇襲攻擊)

기습(奇襲)이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장소, 수단, 방법으로 적을 타격하는 것이다.⁶³⁾ 기습은 적 지휘관의 의표(意表)를 찢어 적에게는 물리적/심리적 균형을 상실하게 하는 반면, 아군에게는 전장주도권 장악을 용이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한다.

제17연대장은 적의 전령을 생포하여 획득한 첩보를 가지고 적의 이동로 상에 매복을 준비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휴식을 하거나 이동 중인 북한군에 대하여 기습공격을 실시하여 적 연대 병력을 2차레에 걸쳐 섬멸하는 등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절대 병력 면에서는 아군의 숫자가 열세하였으나 뽕나무와 담배밭을 활용하여 완전 기도 비닉을 유지하고 적의 주력부대가 경계에 취약한 휴식 및 식사시간까지 기다린 후에 기습공격을 실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며,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되었다.

반면 적 제15사단은 중공군 출신으로 기간편성되어 군 예비로 있었다. 38선을 돌파한 후 파죽지세로 남하하면서 한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해보지

63) 지상근 기본교리(육군본부, 2005)에는 군사작전의 원칙에 기습은 빠져있으나 공격작전에서 중요한 준칙에 해당하므로 분석에 추가하였음.

못한 그들은 한국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무극리 일대에서 한국군 제6사단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바 있으면서도 전세가 적에게 유리한 측면만 믿고 특별한 경계대책을 취하지 않고 화령장 계곡으로 행군을 하다가 기습공격을 당하였다.⁶⁴⁾

3) 철저한 지휘통제

지휘통제(指揮統制)란 부여된 임무달성을 위하여 군사작전을 계획, 지시,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편성·수단·절차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하여 이루어지며 조직적인 지휘통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작전요소들의 효과적인 통합,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명령 및 지시의 간명화가 요구된다.⁶⁵⁾

제17연대 1대대장은 적 전령으로부터 획득한 첩보를 기초로 하여 상주쪽으로 행군을 하는 대신 적의 휴식 예정지로 판단되는 화령장 계곡일대에 매복진지를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기도비닉과 함께 철저한 사격군기를 유지함으로써 적 48연대의 주력부대를 적시에 섬멸할 수 있었다.

특히 제1대대장은 철저한 사격 통제를 실시하여 매복진지에서 16:00시부터 무려 3시간 30분 동안 기다렸다. 19:30분경 적의 주력 병력이 저녁 식사를 위해 집결하고 있던 순간을 포착하여 기습공격을 개시하였고 가용한 박격포와 기관총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또한 제2대대장인 송호림 소령은 적 치중대를 성공적으로 격멸하였지만 자신의 사격명령 없이 사격한 점을 중시하고 각 중대장들에게 “앞으로 내 명령 없이 사격할 경우에는 해당 중대장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사격군기를

64) 사사키 하루다카(佐佐木春隆) 저, 강창구 역, 『한국전 비사: 반격과 휴전』 하권(병학사, 1977), p. 204.

65) 육군본부, 『지상군 기본교리』(육군본부, 2005), pp. 2-8~2-11.

재차 강조하였다. 확실한 지휘통제를 위해 전방에 경계부대를 추진 배치하여 적의 움직임 추적이면서 적의 주력이 977번 도로 앞 매복지점의 중앙에 올 때까지 유인한 후에 공격함으로써 적을 결정적으로 섬멸할 수 있었다.

4) 이소제대(以小制大)의 대표적인 전투

상대적(相對的) 전투력을 비교해 볼 때 적은 정규 1개 사단이었으나 아군은 1개 연대 병력과 포병지원도 없이 연대에 편제된 81밀리와 60밀리 박격포가 전부였다. 그러나 제17연대장과 예하 대대장은 당시 상황이 적에게 밀리면서 후퇴하는 긴박한 상황하에서도 ‘북괴군이 남하 중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비록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장비도 변변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작전을 구상하고 전투준비를 하였다.

수적으로 열세한 상황에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기습공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가용한 시간 내에 장병들로 하여금 화령장 일대의 계곡에 매복진지를 준비시켰다. 제17연대장과 대대장들의 치밀한 전투준비후 기습공격을 실시하여 적 제15사단의 주력인 48연대, 치중대, 45연대를 차례로 완전 격멸하는 막대한 전과를 올렸다. 한국군 17연대의 지휘관과 참모진의 용병술과 싸워 이기겠다는 전투의지가 더 없이 빛나는 전투다.

6.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령장 전투는 6·25전쟁 초기에 UN군이 파죽지세로 밀리던 위급한 상황에서 풍전등화와 같던 대한민국의 위기를 넘기게 해준 귀중한 전투이다. 화령장 전투는 작전적(作戰的) 측면에서도 큰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다.

즉, 미 제24사단이 방어(防禦)하고 있던 금강방어선이 무너지고 대전이 함락되기 직전의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하에서 한국군 제17연대가 화령장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대구의 관문인 경북 상주로 진출하여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북한군의 작전계획을 좌절시켰다. 또한 국군의 재편성 및 전선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고 이로 인해 민족의 사활이 걸린 대구 및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술적 차원에서 교훈을 보면 당시 아군이 계속적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적의 약점과 작전지역의 특수성을 잘 활용한 성공적인 매복 기습작전으로 평가된다. 한국군이 열악한 조건하에서 “전장의 승패는 반드시 병력이나 장비의 다과(多寡)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과 함께 “지형을 이용한 기습은 성공의 요체”라는 전쟁원칙을 재확인해 주었다. 수적으로 열세하고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가용한 적에 대한 첩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1개 연대가 적 2개 연대를 격멸하였다. 이러한 전과로 인해 연대전 장병이 1계급씩 특진한 6·25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이소제대(以小制大)의 대표적인 전례이다.

화령장 전투는 개전 초기 국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전차 공포증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적에게 궤멸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한국군도 열세한 전투력으로도 북한군을 격퇴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렇듯 화령장 전투는 아군의 전선을 동서로 분리하고 한미연합군의 퇴로를 차단하여 8월 15일 부산을 점령하고자 했던 북한군의 작전기도를 분쇄한 결정적 성격의 전투였다. 이로써 UN군은 6·25전쟁 당시 최대의 위기였던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여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반격 작전의 기틀을 이곳 화령장 전투에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전사적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본 연구(研究)를 통해서 전술적 수준의 분석에 머물러 있던 화령장 전투를 한 단계 높여서 작전적 수준에서 분석을 함으로써 화령장 전투 결과가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유엔군을 동서로 분리하여 작전적 절단을 시도하

려는 북한군의 작전 기도를 좌절시켰고, 국군과 미8군의 재편성 및 전선 조정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제공함과 함께 차후 낙동강 방어선 형성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부각시켰다.

또한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사료와 공산권에서 입수한 자료(資料)인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와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출간한 『조선전사 현대편 조국해방전사 1』 25권 등을 근거로 정확한 전투경과를 입체적으로 재구성(再構成)하였다.

즉, 북한군 제 15사단의 전투서열에서 잘못 표기된 제49연대를 제45연대로 수정하였고, 동락리 전투에서 아군 제17연대 2대대 예하 중대의 작전 배치도가 잘못 도식되어 있는 것을 좌에서부터 제7중대, 6중대, 5중대 순으로 수정 도식하였다.

본고를 통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을 격멸하고 통쾌하게 승리한 화령장 전투가 올바르게 재조명되고 우리의 상무정신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원고투고일 : 2009. 9. 23, 심사수정일 : 2009. 11. 11, 게재확정일 : 2009. 11. 17)

주제어 : 6·25전쟁, 전투, 상주, 화령장, 국군 제17연대, 대대장, 북한군 제15사단, 기습공격, 매복, 작전적

<ABSTRACT>

Reexamination of the *Hwaryeongjang* Battle and Its Military Meaning

Jang, Sam-yeol

Studying history of war is the most effective way for military personnel who haven't participated in actual war to build a sense of war. In the same aspect, we're able to learn much about war from the history of Korean War.

The *Hwaryeongjang* Battle, which I am trying to deal with in this paper, is the victorious battle that took place in 1950 from July 17th to July 25th, when the ROK (Republic of Korea) Army was conducting a delaying operation at *Sobaek* mountain range. After receiving information that North Korean troops were to attack towards the *Sangju* and *Hwaryeongjang* routes, the ROK Army gave a defensive order to the ROK 17th Infantry Regiment. The 17th Infantry Regiment prepared an ambush attack near *Hwaryeongjang* and conducted a surprise attack against two regiments under North Korean 15th Infantry Division. This is known to be one of the most considerable military achievements of the Korean War. Consequently, all troops including the regiment commander were specially promoted to a higher rank. The victory raised the morale of the ROK troops when the army was under adverse circumstances.

Nevertheless, because of the lack of follow-up studies, the *Hwaryeongjang* Battle is not enough educated. Also, it seems that there is a tendency of incorrect recordings of the order of battle (OB) of the North Korean 15th

Division and partial distortions of the combat progresses including operation map.

In this paper, I tried to recompose the accurate combat progress from many angles based on the basic historical materials possessed and the updated data from the communists party. I analyzed lessons learned from the *Hwaryeongjang* Battle with a view of operational level and tactical level.

Facing crisis, the ROK Army Headquarters gave several combat orders, reassigning available combat strengths and ordered the 17th Infantry Regiment to put an end to the North Korean troops' attacks towards *Hwaryeongjang*. The commander of the 17th Infantry Regiment made every effort to collect useful information and to utilize terrain to be fully prepared for combat and conducted the ambush attack successfully.

From an operational aspect, the meaning of the victory in the *Hwaryeongjang* Battle is as follows. First, it frustrated North Korea's plan to surround and destroy the main body of the US 24th Division and the ROK 6th Division in the *Sobaek* mountain range. Second, it provided time for the ROK Army to reorganize units and adjust the frontline. Third, i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Busan* Perimeter (*Nakdong* River Defense Line) to the UN Forces.

From a tactical aspect, the lessons we learned are as follows. First, they were able to carry out an ambush attack at the right time because of continuous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s. Second, they conducted a surprise attack successfully making full use of terrain. Third, they maximized the combat results with close command and control and concealment of attempt. Finally, they destroyed the main force as big as azedvision with only the combat strength of one regiment. This battle is recorded as a typical example of a small unit that achieved victory over a bigger unit.

I hope that through this paper the *Hwaryeongjang* battle would be

reexamined carefully in a military historical view, and that it would help encourage militarism among our ROK Army.

Key Words : The Korean War, Combat, *Sangju*, *Hwaryeongjang*, The ROK 17th Infantry Regiment, Battalion Commander, North Korea 15th Infantry Division, Surprise Attack, Ambush, Operational